

부산 시내 중·고등학생의 약물에 대한 태도와 남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숙련* · 김정순**

The Study on the Attitude about Drugs and the Actual Conditions on Drug Abuse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Pusan City

Sook-Ryon Lee*, Jung-Soon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preventing the youth from their drug abuse and contributing to improve their health. A total of 1,210 students of middle and high schools in Pusan were selected to answer this questionnaire. The data was collected from March 23 to April 6, 1995.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attitude about drug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as desirable. By groups, girl students showed more desirable attitude than boy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an high school students.

2) For the experience of drinking coffee, 70.4% of the subjects of survey answered that they have had: 62.4%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78.9% of high school students. For the started time of drinking coffee 59.8% of them, the largest number, said from middle school days.

3) For the experience of drinking alcoholic liquors, 40.4% of the subjects of survey answered that they have had: 51.4% of boy students and 29.5% of girl students, 23.4%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57.7% of high school students. For the started time of drinking liquors 53.1% of them, the largest number, said from middle school days.

4) For the experience of smoking, 24.8% of the subjects of survey answered that they have had: 37.2% of boy students and 12.5% of girl students, 16.3%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33.3% of high school students. For the started time of smoking 52.0% of them, the largest number, said from middle school days.

5) For the experience of drugs, 6.3% of the subjects of survey answered that they have had. For the started time of abusing drugs 71.0% of them, the largest number, said from middle school days. The kinds and composing ratio of abused drugs were: Timing was 51.4%, bond 20.3%, butane gas 12.6%, thinner 3.8%, methamphetamine 1.9% and mescaline 1.9%.

6) The attitude points toward drugs in case of not taking coffee and liquors, smoking and abusing drugs were higher than the points in case of taking them.

7) The rate of abusing drugs in case of taking coffee and liquors and smoking was higher than that in case of not taking them and smoking.

*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약물남용은 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의 기풍과 질서, 그리고 국민건강의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상으로는 청소년들이 입시경쟁으로 공부만 강요받는 강압적 환경요인으로 인해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전문인과 상의하지 않고 각종 약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하여 대량 생산적 교육제도나 편입일률적인 교육방식은 대화의 상대를 잃은 청소년들의 탈선에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좌절감, 패배의식, 우울, 불안, 그리고 쾌락주의 의식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쉽게 약물의 유혹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최연아, 1987; 기백석, 1990).

약이란 질병의 치료, 진단 및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으며, 약물은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품의 개념 외에 인간의 정신기능에 변화를 초래하는 물질(substance) 전반을 총칭한다. 따라서 술이나 담배를 비롯하여 청소년 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본드, 가스, 신나와 같은 유기용제도 인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므로 약물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며, 이외 대마,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류가 모두 약물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된다(김경민, 1990).

약물남용은 행동, 인식력, 그리고 감정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자의에 의해 향정신성 약물(psychotropic drugs)을 불법적 비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정신 및 정서손상, 신체손상,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주왕기, 1989). 약물남용이라고 하면 흔히 마약류나 법으로 금지된 것들을 합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술, 담배, 카페인 등이 가장 흔한 약물남용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다. 이런 물질들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제한되어 있으나 실생활에서 흔히 유통될 뿐만 아니라 구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부담없이 남용하여 비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부산시교위, 1990).

Chinlund(1974)는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몇 가지 요인을 지적하였는데, 약물남용 청소년의 수적 증가추세, 연소화, 약물남용

과 비행이나 범죄와의 밀접한 상관관계 등이라고 했다.

한편 청소년기는 사춘기에서 시작하여 성인기로 이행하는 중간 과정으로서 그 연령 범위는 11세에서 20세이며, 이 시기의 특징은 2차 성장을 포함한 신체 발육과 이에 따르는 심리적 사회적 주요 적응기간으로 기분 변화가 심하고 우울반응과 적응장애를 많이 일으킨다. 또한 발달단계적으로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에 직면해 있으며,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와 함께 모험이나 위험을 즐기며 성인들의 행위를 모방하려는 욕구들이 있다. 즉, 발달단계 자체가 극적인 요소가 많고 재적응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스트레스와 불안이 발생하며 주변 또래 친구들의 압력을 무척 많이 받는 시기여서 특히 약물의 유혹에 취약한 시기이다(최선화, 1991; 보사부, 1993).

특히, 청소년기의 약물남용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첫째, 청소년들은 일단 약물남용을 시작하면 약한 약물에서 더 강한 약물로 빠르게 중독되고 둘째, 한가지 약물로 시작하지만 쉽게 여러 가지 약물을 복합적으로 남용하게 되며 셋째, 청소년기에 약물을 남용한 사람은 대부분 성인기에 폐인이 된다는 사실이다(부산시교위, 1990).

약물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는 실태 파악을 위한 사회조사, 관련 법령제정, 예방교육과 계몽, 약물 오남용자,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등이 있다. 우리나라 현실은 법정제(마약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대마 관리법 등)는 잘 되어 있으나 나머지 세 분야는 아주 미흡한 상태이다(주왕기, 1990).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어지며, 이 가운데서도 일단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치료나 회복이 어려운 약물 문제의 특성상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사회조사와 예방교육 및 계몽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청소년의 약물남용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약물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지금까지 수행된 청소년 약물남용 문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약물남용 실태조사에 치중되어 있고, 약물남용행위의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약물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 연구는 드물었다. 또한 부산은 1994년도 마약사범이 전국의 10.2%를 차지하고 있어 약물남용 문제가 특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적었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를 보면 약물남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카페인이나 술, 담배 등은 어린 학생들이 실제로 마약류보다 더 쉽게 남용할 가능성이 커 남용 가능 약물의 대상에 카페인, 술, 담배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남용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부산시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약물남용의 초기단계인 커피, 술, 담배를 포함하여 다음 단계의 습관성 약물에 대한 태도와 남용실태를 알아봄으로써 청소년 약물남용예방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중·고등학생들의 약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 ② 중·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 실태는 어떠한가?
- ③ 중·고등학생들의 약물에 대한 태도와 약물남용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④ 중·고등학생들의 커피 음용, 음주, 흡연, 약물남용 경험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문헌 고찰

1. 약물남용의 정의 및 폐해

약물(drug)이란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물질(substance)로서 음식물이 아닌 것으로 신체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하며, 긍정적인 면으로는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한 약물의 의학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는 약물남용으로 인한 자기파괴나 사회적 파괴의 의미가 있다(주왕기, 1989).

어떤 약물의 사용행위가 남용이나 아니냐하는 문제는 약물의 사용 정도보다 약물에 대한 사회의 가치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대마초를 한번 피우는 것은 약물남용에 해당되지만 담배를 매일 몇 갑씩 피우는 것은 약물남용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 마시는 행위가 어른에게는 허용되나 청소년에게서는 약물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김성이 등, 1989).

약물남용에 관한 정의는 간단하지가 않은데 캐나다 정부 전문가들은 약물을 비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1966년 미국의사협회에서는 의학적 감독없이 약물을 스스로 복용하는 것이라 했다. 이는 주기적 또는 지속적 사용이 정신적 의존, 신체적 의존, 내성을 일으킬 잠재성이 있는 약물에 대하여 통괄적으로 내려진 것이다. 김 등(1989)은 어떤 사람이 어떤 약물을 계속해서 오용할 때나 혹은 그 사람이 약물의 사용에 대해 통제할 수 없을 때, 혹은 약물복용이 개인의 가족, 직업 및 기타 사회적 기능수행 능력에 장애를 가져올 때를 말한다고 했으며, 주(1989)는 향정신성 약물의 비의학적 사용이라 했다. 향정신성 약물(psychotropic drugs)은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drugs), 즉 사용했을 때 정신(psycho)을 향하여(tropic) 작용하는 약물을 말한다. 정신의 세계는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향정신성 약물은 곧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물질이다(주왕기, 1989). 이를테면 지각, 운동, 청각, 미각, 후각, 언어, 호흡, 혈관, 심장, 연하반사의 식세 및 말초신경의 자극 등 말초에 지령을 내리는 곳에 작용하는 약물을 말한다. 약물남용의 목적은 정신기능의 변화를 초래하고자 하는데 있으며(김경민, 1990), 이들 약물은 그 종류가 다양하여 분류가 쉽지 않으나 향정신성 약물은 중추신경 흥분제(CNS stimulants)와 중추신경 억제제(CNS depressants)로 구분되며, 흥분제에는 필로폰, 코카인, 카페인 등이 있고, 억제제에는 아편, 몰핀, 코데인과 같은 마약과 술, 수면제, 진정제 등이 있다. 그리고, 어떤 일련의 약물들은 흥분성과 억제성을 동시에 갖는데 이런 약물들을 환각제(hallucinogens)라고 하고, LSD, 메스카린, 실로신, 대마(THC) 등이 환각제에 속한다(주왕기, 1990).

한편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들이 처음 담배와 술로 시작하여 본드, 가스, 약, 대마, 마약류 등의 순서로 약물을 남용하게 되므로 이에 준하여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커피, 술, 담배 : 커피, 술, 담배는 기초식품이면서 약물남용의 초기 단계이기도 하다. 음주, 흡연의 경우, 성인에게는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보호법에는 금지되어 있다.

② 본드 및 흡입용제(inhalants) : 가솔린, 신나, 라이타 용액, 접착제, 아교 등의 물질에는 톨루엔, 아

세톤, 벤젠 등의 성분이 들어 있어 체내에 들어가 마취작용, 명정작용, 환각작용, 치사작용 등을 일으킨다.

③ 약(drugs) :

각성제(암페타민, 메스 암페타민(필로폰), 타이핑 등) - 일시적 행복감, 자신감, 경계심 등을 유발하고 신경과민증, 고혈압, 심리적 의존증, 불면증, 시각과 청각의 환각, 여러 가지 뇌 손상, 정신병 등을 일으킨다.

환각제(LSD, 메스카린, psilocybin 등) - 자율신경실조나 운동신경 실조를 야기시키는 정신이상 발현물질로서 강하고 기묘한 정신적 반응을 일으켜 감각, 사고, 자아인식, 감정에 변화를 일으킨다.

신경안정제(바리움, 리브리움, 아티반 등) - 불안 및 동통에 대한 치료제로 쓰이며, 근육이완 및 마취 효과가 있다. 다량 복용할 경우 졸리움, 운동 실조, 혼란함, 공격적 행동을 경험할 수 있다.

수면제(바비탈, 다이아제팜 등) - 청소년이 많이 남용하는 약물로서 다량 복용시 치명적이다.

기타(러미나(루비킹), 아빌) - 러미나는 다행감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비마약성 진해제로서 진통작용과 습관성이 없으며, 중독성도 낮다. 항히스타민제인 아빌도 흔히 남용하는 약물이다.

④ 대마(마리화나, 해시시 등) : 기분 향진감을 일으켜 환각작용 및 도취감이 생긴다.

⑤ 마약 : 그 종류는 마약 원료 생약에서 추출되는 천연마약(아편, 물핀, 크카인, 코데인)과 아편에서 추출한 물핀을 아세틸 혹은 메틸화하여 제조하는 부분합성 마약(헤로인) 및 화학약품에서 합성된 합성마약(데메롤, 메'돈)으로 분류한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없애고 기분을 전환시키며, 불안, 긴장에서 평정으로, 우울에서 다행으로의 쾌의 상태를 얻으려고 사용되어진다.

향정신성 약물은 정신적 의존을 일으키는 습관성과 육체적 의존을 일으키는 중독성 또는 탐닉성이 있는데, 정신적 의존성이란 약물사용을 중단했을 경우, 사용자의 생각이 마약류와 약물로 가득차게 된다는지 사용 당시 쾌감 및 감정의 변화를 갈망하는 상태이며, 육체적 의존성이란 약물남용으로 인하여 사용 마약류 및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상태 즉, 내성(tolerance)이 생기며, 중단했을 경우 섬망, 플래쉬백 등 정신과적

질환과 금단증상이 야기되는 경우를 말한다(부산시교육청, 1991; 보사부, 1992).

약물 사용의 위험성이 제일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나이는 18~22세이며, 25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위험성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초기 성인기에 약물에의 위험성이 감소하는 이유는 초기 성인기가 결혼, 가족부양, 직업추구 등과 같은 약물사용과는 양립될 수 없는 성인역할을 행하여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평생에 걸쳐 약물중독자의 길을 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상황은 15세 이전부터 약물사용을 시작하는 것이다(보사부, 1993). 어린 시기에 약물을 남용할 경우, 성장 후 폐인이 되기 쉽고, 장기복용하는 경우에는 약물 자체의 해독으로 인한 신경 및 신체조직의 손상이나 신체발육 지연, 신체기능 부조화 등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약물남용 시 무단결석, 성적저하가 뒤따르게 되고 약물중독 상태에서는 환각, 망상이 나타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며 비행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 사회적으로도 생산적인 노동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체육청소년부, 1991).

합병증으로는 신체적 합병증과 정신과적 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체적으로는 약물로 인해 평소의 신경전도물질 수급조절능력에 장애가 생겨 외부의 세균 및 여러 병원균과 싸우는 면역기능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약물을 호흡기를 통해 사용 시에는 축농증, 코뼈가 뚫어짐, 만성기관지염, 만성폐색성 호흡기질환, 폐염, 폐결핵 등이 올 수 있으며, 주사기를 사용 시에는 간염이나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걸릴 수 있으며, 이외에도 폐염, 정맥염, 피부염, 위염, 위궤양, 간경화, 당뇨병, 고혈압, 암 등이 올 수 있다. 정신과적으로는 약 기운이 있는 동안에는 기분이 좋으나 약 기운이 떨어지면 우울증이 생기며,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불안, 발작이 오게 되며,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수 있다(보사부, 1993).

2. 약물남용실태와 대책

약물남용은 원래 원주민들의 종교의식에서 비롯되었지만 현대의 의미를 갖는 약물남용 행위는 196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들 젊은이들에 의해서 전세계에 퍼졌다(주왕기, 1990).

미국의 경우, 1960년대에는 마약중독이 지속현상을

보였으나 1970년대 이후 정온제, 수면제의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 코카인의 사용이 급증하였다(주왕기, 1990; 천성기, 1969). 그러나, 요즘은 헤로인이 코카인을 제치고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헤로인은 코카인에 비해 값이 싸고, AIDS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요즘 주사기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조선일보, 1994).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성제(필로폰)가 남용되었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유기용제와 본드의 남용이 발생하였으며, 1965~1975년에는 헤로인, 코카인 등 맹독성 마약이 추가 남용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시행된 강력한 각성제 관리법과 1987년 설립된 마약 및 각성제 남용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약물 오·남용을 홍보케 한 결과, 1989년부터 일본내 약물사범 및 중독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보사부, 1992; 이리키 노부요시, 1990).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에는 아편, 1970년대에는 대마초가 주로 남용되다가 1980년대에는 히로뽕이 남용되기 시작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본드, 가스 등 휘발성 물질과 일반 대중 의약품이 널리 사용되어 엄격한 규제 또는 관리가 어려운 기침약 등, 일반 약물 남용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코카인과 LSD가 더해진 복합약물의 남용(poly drug abuse)을 예측하고 있다(주왕기, 1990; 보사부, 1992). 대검이 지난 1988년부터 1993년까지 국내 마약류 범죄 유형을 분석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의하면, 마약류 시범이 1993년에는 전년에 비해 128% 증가하였으며(국제신문, 1994), 최근 들어서는 다시 대마 흡연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히로뽕이 품귀 현상이 빚으면서 일부 한약재료상이나 건재상에서 판매하고 있고, 산이나 들에 야생 산재해 있어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비교적 값이 싸고 중독성이 없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대마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이라 하며, 1994년 한해 동안 적발된 대마초 흡연자는 1천5백여명이나 된다(국제신문, 1994).

현재 우리나라의 약물남용 문제는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1980년대에 들어와서 교복 자율화로 상징되는 학원의 자유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급속하게 급증되고 있다(체육청소년부, 1991). 주(1990)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약물남용과 비행경험 실태조사에서 대상자들은 음주 68.2%, 흡연 37.1%, 대마 2.2%, 코카인 1.1%, 각성제 17%, 필로폰 0.5%, 마약 0.5%, 환각제 1.5%, 본드 3.2%, 신경안정제 2.3%, 수면제 3.8%, 해열진통제 33.6%, 진해제 1.1%, 항히스타민제 1.3%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물남용자 중 비행경험자가 많았으며, 고3 여학생의 음주, 흡연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황(1990)의 부산과 진주 지역의 일부 고등학교 학생의 약물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는 음주 87.6%, 흡연 26.5%, 대마 1.3%, 유기용매제 3.3%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청소년 상담실이 1994년 부산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물 및 환각제 사용 경험자 설문 조사」에서는 7.1%가 약물이나 환각제 사용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본드 63.6%, 부탄가스 10.1%, 각성제 복용 9.3%, 마약류 2.3%였다(국제신문, 1994).

비행과 약물사용 경험과의 관계를 보면, 각종 약물 사용 경험자들이 비경험자들에 비하여 흡연의 경우 약 4배, 음주의 경우 약 6배, 본드의 경우 약 3배 정도 비행 경험도가 높았다(주왕기, 1990).

김 등(1989)에 의하면 학교 청소년들은 13세 때에 피로회복제 남용으로부터 약물남용과 흡연이 처음 시작되며, 14세 때 진통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후반에는 각성제, 음주, 본드를 사용하고 15세에 마리화나, 안정제, 16세 때 최면제를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에 따른 비행행위는 무단 결석이 흡연을 시작한 직후인 13세에 나타나며, 곧이어 금품갈취의 비행을 저지르고, 14세 후반에 학교의 처벌을 받으며 반항과 가출이 뒤따르고, 15세에 음란 비디오를 보거나 흥기를 소지하게 되고, 15세 후반에는 술집 출입, 경찰에 보호사제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소년의 약물남용 시기가 비행행위 시기보다 먼저 나타나므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약물사용 증후를 먼저 발견한다면 약물의 발전 및 비행으로 인한 자기 파멸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습관성이 없는 의약품으로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의 규제를 위해 기존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이 폐지되고 1980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이 별도로 제정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규제되고 있는 것은 151종

에 이르고 있다(보사부, 1988).

약물 남용 사실이 밝혀진 청소년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대마관리법」, 「항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마약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치료나 재판을 위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김상희등, 1991), 약물을 남용한 청소년들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면, 시설에 수용, 격리될 뿐 이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나 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 다른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는 형편이다(최신화, 1991). 그러나 약물남용 문제는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기에 앞서서 치료의 대상이므로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확인되면 즉시 가정, 학교, 병원의 삼각통로를 이용하여 치료의 기회를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부산시교육청, 1991).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약물과 가정용 화학약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런 물질들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위험성을 알려주는 예방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물남용의 취약점이 가장 높은 청소년기 이전부터 약물남용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학교부터 시작하여 중고등학교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부산시교육위, 1991), 각 단계마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겠다. 또 청소년은 물론 부모와 교사도 포함시키며 약물남용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약물에 대한 수요를 통제하고, 약물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기 위하여 약물의 제조와 판매과정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김상희 등, 1991).

미국에서의 과거 약물교육은 학생들에게 각개의 남용 약물을 나열하고 그 위해성을 강조함으로써 약물 사용에 겁을 먹게하는 일종의 공포작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약물을 남용하는 학생의 수를 증가시키기만 했던 것이다. 약물남용 학생수를 증가시킨 가장 큰 원인은 너무 상세하게 약물의 이름을 나열하고 그 작용 및 위해성을 홍보한 결과, 호기심을 자극시킨 것과 약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한 것이 주 원인이었다. 약물예방교육은 정보전달에 의한 단순 교육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보전달과 더불어 학생 및 청소년이 느끼는 갈등 해소와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교육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보사부, 1992).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과 뚜렷한 인생목표를 가지고 이의 실현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부산시교위, 1990).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으로 부산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중에서 편중을 막기 위해 학교 종류와 소재지역을 고려하여 중학교 4개교(남 2개교, 여 2개교), 고등학교 4개교(인문계 남 1개교, 인문계 여 1개교, 실업계 남 1개교, 실업계 여 1개교) 총 8개교를 임의 표출하였다. 다음 표출된 각 학교에서 각 학년 1학급씩을 다시 임의로 표출하고 표본으로 선정된 학급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1211명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1명을 제외한 1210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제작한 설문지를 부산시 소재 여중 1개교와 실업남고 1개교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다시 수정, 보완하여 확정된 자가보고형 설문지였다.

설문지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14문항, 약물 교육에 관한 5문항, 약물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13문항, 남용 약물의 종류 및 남용빈도, 약물남용 양상을 알아 보기 위한 17문항의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약물이라 함은 광의의 의미로는 커피, 술, 담배, 본드, 신나, 부탄가스, 메스암페타민(히로뽕), 암페타민, 타이핑, L.S.D, 메스카린, 바리움, 리브리움, 아티반, 페노바비탈, 다이아제팜, 세코날, 아빌, 러미나(루비킹), 마이화나, 해시시, 아편, 몰핀, 코카인, 코데인을 포함하고, 협의로는 기호식품인 커피, 술,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약물을 말한다.

3.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은 1995년 3월 23일부터 4월 6일 사이에 연구자가 설문지를 직접 해당학교 양호교사 또는 관련교사에게 전해주고, 그 교사가 대상 학급에 유의사

항과 함께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 보고 형식으로 응답케 한 후, 즉석에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시간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대략 15~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응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 수집자로 담임선생님은 피하였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옆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솔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강조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1) 일반적 특성 및 약물남용 실태는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약물에 대한 태도는 M(평균), S.D(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계특성에 따른 약물에 대한 태도, 남용실태의 차이는 χ^2 -test, T-test, F-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49.4%, 여학생 50.6%로 여학생의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학교 형태는 남자중학생 25.3%, 여자중학생 26.5%, 인문계 남자고등학생 11.7%, 실업계 남자고등학생 12.4%, 인문계 여자고등학생 12.1%, 실업계 여자고등학생 12.1%이었다.

종교는 불교가 3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기독교 19.4%였으며,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경우도 36.7%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48.6%, 중졸 17.8%, 대졸 17.0% 순으로 고졸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43.6%, 중졸 30.6%, 국졸 11.3% 순으로 아버지의 학력보다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상업/사업 27.4%, 기술직 24.0%, 사무직 21.9%, 단순 노동 10.1%, 전문직 5.6% 순이었고,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는 34.5%이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주택가 67.4%, 아파트 23.9%, 시장 4.0%로 주택가가 가장 많았으며, 경제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10)

내 용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598	49.4
	녀	612	50.6
학 교 형 태	중학교	627	51.8
	남자중학교	306	25.3
	여자중학교	321	26.5
	고등학교	583	48.2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141	11.7
	실업계 남자고등학교	150	12.4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146	12.1
	실업계 여자고등학교	146	12.1
종 교	불교	422	34.9
	기독교	235	19.4
	천주교	83	6.9
	무교	444	36.7
	기타	26	2.2
아버지의 학 력	무학	4	0.3
	국졸	80	6.6
	중졸	215	17.8
	고졸	588	48.6
	대졸	206	17.0
	무응답	117	9.7
어머니의 학 력	두학	6	0.5
	국졸	137	11.3
	중졸	370	30.6
	고졸	528	43.6
	대졸	82	6.8
	무응답	87	7.2
아버지의 직 업	전문직	68	5.6
	사무직	265	21.9
	기술직	290	24.0
	상업/사업	331	27.4
	단순 노동	122	10.1
	무직	24	2.0
	무응답	110	9.1
어머니의 직 업	전문직	15	1.2
	사무직	58	4.8
	기술직	26	2.1
	상업/사업	190	15.7
	단순 노동	130	10.7
	무직	698	57.7
	무응답	93	7.7

표 1. Continued

내 용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주택가	816	67.4
	아파트	290	23.9
	공장지대	11	0.9
	유흥상가	11	0.9
	시장	48	4.0
	무응답	35	2.9
경제적 상태	아주 잘 산다	20	1.7
	자 사는 편이다	190	15.7
	보통이다	83	75.4
	가난하다	5	6.9
	아주 가난하다		0.4
공부방	혼자만 사용한다.	568	46.9
	형제와 함께 사용한다.	572	47.3
	없다	70	5.8

적 상태는 보통이다 75.4%, 잘 사는 편이다 15.7%, 가난하다 6.9%로 응답하였으며, 공부방은 형제와 함께 사용한다 47.3%, 혼자만 사용한다 46.9%이었으며, 없는 경우는 5.8%이었다.

2. 약물에 대한 태도

약물에 대한 태도를 알아 보기 위해 13문항을 조사하였으며, 이는 약물사용의 효과에 대한 인식 4문항(①, ②, ④, ⑤), 약물에 대한 학교와 사회의 규제에 관한 태도 3문항(③, ⑥, ⑦), 약물사용에 대한 수용성 3문항(⑧, ⑨, ⑫), 약물사용에 대한 도덕적 판단 3문항(⑩, ⑪, 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은 '정말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중에서 택하도록 하였으며, '정말 그렇다'에는 1점, '그저 그렇다'에 2점, '그렇지 않다'에 3점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긍정적인 태도라고 간주되는 ②, ⑧, ⑩, ⑪, ⑫, ⑬의 문항에 대해서는 점수를 역으로 부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약물에 대해서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1) 집단별 약물에 대한 태도

각 문항에 대한 태도점수는 표 2와 같다.

13개 문항의 태도점수를 모두 합한 총 태도점수는 평균 32.5점으로 약물에 대해 비교적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집단별로 보면 여학생(33.3점)이 남학생(31.6점)보다 건전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P<0.001), 중학생(33.3점)이 고등학생(31.7점)보다 건전한 태도를 보였다(P<0.001).

항목별로 살펴 보면, 모든 항목에서 2점 이상으로 대체로 바람직한 태도를 보였다.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아무리 친한 친구가 권하더라도 그것이 해로운 약물일 때에는 나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와 '본드, 가스나 해로운 약물 등을 사용하는 것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로 각각 모두 2.8점이었으며,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대학교 시절에는 음주, 흡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로 1.9점이었다. 이와같이 중, 고등학생들은 현재는 해로운 약물에 대하여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대학교 시절의 음주, 흡연에 대하여는 비교적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실제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남녀 간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항목은 '음주나 흡연은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을 준다'로서 여학생(2.8점)이 남학생(2.5점)보다 태도점수가 높아 약물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보였다(P<0.001).

두번째로 남녀 간에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고등학교 시절에는 음주, 흡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라는 항목으로 여학생(2.7점)이 남학생(2.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이와같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음주, 흡연에 대해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주(1989)는 여학생의 흡연 경험도가 1982년 이후 급상승하고 있고, 1989년에는 4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여학생 음주인구의 증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학교 형태별 차이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음주나 흡연은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항목으로서 중학생(2.9점)이 고등학생(2.5점)보다 태도점수가 높았다(P<0.001). 두번째로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고등학교 시절에는 음주, 흡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로서 이도 역시 중학생(2.7점)이 고등학생(2.4점)보다 태도점수가 높았다(P<0.001). 인문계와 실업계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히로뽕, 아편 등과 같은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감옥에 수감되어야 한다'로서 실업계(2.7점)가 인문계(2.6점)보다 높았다(P<0.001).

2) 제 특성별 약물에 대한 태도

제 특성에 따른 약물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표 3과

표 2. 집단별 약물에 대한 태도점수

단위: 점

	계		성		학 교		고등학교	
			남	여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총태도 점수	M 32.5	S.D 4.94	31.520	33.409	33.344	31.695	31.868	31.530
			4.312	3.549	3.709	4.197	3.731	4.598
			(t=-7.66, P=0.000)***		(t=7.03, P=0.000)***		(t=0.95, P=0.343)	
① 커피는 잠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한다.	M 2.3	S.D 0.66	2.274	2.397	2.340	2.332	2.325	2.339
			0.673	0.646	0.679	0.642	0.623	0.660
			(t=-3.26, P=0.001)***		(t=0.21, P=0.831)		(t=-0.26, P=0.796)	
② 커피는 위장병이나 정서불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M 2.0	S.D 0.66	1.950	2.104	2.028	2.029	2.098	1.963
			0.673	0.690	0.689	0.684	0.680	0.682
			(t=-3.88, P=0.000)***		(t=-0.04, P=0.968)		(t=2.40, P=0.017)*	
③ 커피는 국민학교 시절부터 마셔도 괜찮다.	M 2.7	S.D 0.54	2.649	2.764	2.695	2.720	2.749	2.693
			0.605	0.462	0.556	0.523	0.487	0.555
			(t=-3.70, P=0.000)***		(t=-0.81, P=0.418)		(t=1.31, P=0.192)	
④ 흡연은 복잡한 문제를 생각할 때 정신을 집중시켜 준다.	M 2.7	S.D 0.56	2.641	2.821	2.796	2.655	2.716	2.616
			0.633	0.466	0.512	0.604	0.546	0.652
			(t=-5.57, P=0.000)***		(t=4.01, P=0.000)***		(t=1.97, P=0.049)*	
⑤ 음주나 흡연은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을 준다.	M 2.7	S.D 0.63	2.508	2.807	2.862	2.483	2.548	2.420
			0.733	0.475	0.474	0.726	0.669	0.773
			(t=-8.41, P=0.000)***		(t=9.47, P=0.000)***		(t=2.11, P=0.035)*	
⑥ 고등학교 시절에는 음주, 흡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M 2.5	S.D 0.63	2.391	2.673	2.663	2.390	2.425	2.356
			0.686	0.535	0.576	0.654	0.615	0.689
			(t=-7.97, P=0.000)***		(t=7.83, P=0.000)***		(t=1.28, P=0.202)	
⑦ 대학교 시절에는 음주, 흡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M 1.9	S.D 0.70	1.812	2.069	2.031	1.847	1.833	1.861
			0.723	0.642	0.704	0.673	0.631	0.713
			(t=-6.53, P=0.000)***		(t=4.61, P=0.000)***		(t=-0.51, P=0.613)	
⑧ 나는 어른이 되면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	M 2.3	S.D 0.72	2.235	2.391	2.386	2.367	2.185	2.277
			0.736	0.698	0.705	0.731	0.722	0.739
			(t=-3.79, P=0.000)**		(t=3.60, P=0.000)***		(t=-1.35, P=0.177)	
⑨ TV 등에서 음주나 흡연장면을 보면 멋있어 보인다.	M 2.2	S.D 0.61	2.171	2.259	2.324	2.100	2.115	2.085
			0.609	0.600	0.637	0.548	0.507	0.585
			(t=-2.51, P=0.012)*		(t=6.54, P=0.000)***		(t=0.68, P=0.496)	
⑩ 본드, 가스나 해로운 약물 등을 사용하는 것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M 2.8	S.D 0.48	2.797	2.845	2.837	2.805	2.812	2.797
			0.509	0.444	0.479	0.476	0.472	0.480
			(t=-1.73, P=0.084)		(t=1.19, P=0.236)		(t=0.37, P=0.712)	
⑪ 병을 낫게 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떤 약물이든지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M 2.7	S.D 0.61	2.649	2.671	2.682	2.638	2.633	2.642
			0.621	0.602	0.607	0.616	0.617	0.616
			(t=-0.62, P=0.538)		(t=1.25, P=0.210)		(t=-0.18, P=0.860)	

표 2. Continued

	계		성		학 교		고등학교	
			남	여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⑫ 아무리 친한 친구가 권하더라도 그것이 해로운 약물인 때에는 나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	M	2.8	2.802	2.878	2.865	2.832	2.864	2.801
	S.D	0.45	0.485	0.416	0.440	0.464	0.417	0.505
			(t=-2.20, P=0.028)*		(t=1.29, P=0.199)		(t=1.65, P=0.099)	
⑬ 히로뽕, 아편 등과 같은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감옥에 수감되어야 한다.	M	2.7	2.735	2.741	2.822	2.648	2.579	2.715
	S.D	0.57	0.578	0.568	0.490	0.639	0.680	0.589
			(t=-0.20, P=0.842)		(t=5.31, P=0.000)***		(t=-2.58, P=0.010)**	

* p<0.05, ** p<0.01, *** p<0.001

같다.

이성 교제는 없다 51.3%, 전에 있었다 17.9%, 있다 17.7%, 혼자서 좋아한다 13.1% 순이었으며, 이성 교제가 있는 군(30.1점)에서 태도점수가 가장 낮았고, 없는 군(33.7점)에서 가장 높았다(P<0.001).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이성교제를 할 경우,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도록 하며 학교, 가정, 사회는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스스로 지각하는 성적은 중위권 44.0%, 상위권 41.5%, 하위권 14.5%로 응답하여 자기 성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태도점수는 상위권에서 가장 높았다(P<0.001). 즉, 자신의 성적이 높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약물에 대해서도 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부모의 결합형태는 함께 사신다 89.0%, 사별 4.5%, 이혼 3.8%, 별거 2.7% 순이었으며, 이에 따른 태도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의 양육형태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77.4%, 지배적이라 생각한다 10.4%, 과보호적이라 생각한다 7.9%,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 2.8%, 거부적이라 생각한다 1.5% 순이었으며, 이에 따른 태도점수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33.0점)가 가장 높았으며, 거부적이라 생각한다(30.7점), 지배적이라 생각한다(30.6)가 낮았다(P<0.001). 이와같이 부모의 양육 형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약물에 대한 태도도 올바르게 가지고 있었으므로 거부적이거나 지배적인 부모의 경우는 양육 형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경제적 상태는 보통이다 75.2%, 잘 사는 편이다

15.8%, 아주 잘 산다 1.6%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이에 따른 약물에 대한 태도점수는 잘 사는 편이다(33.1점)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보통이다(32.5점), 가난하다(32.4점), 아주 잘 산다(31.2점), 아주 가난하다(27.8점)의 순이었다(P<0.05). 이는 아주 잘사는 부유층 학생과 아주 못사는 극빈자 가정 학생의 약물 사용 비율이 모두 동일하게 높았다고 보고한 권(1990)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 상태가 극빈하거나 아주 부유한 경우의 학생에 대하여는 약물사용의 위험에 대한 차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약물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 있다 66.8%, 없다 33.2%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태도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학교에서의 약물교육이 실질적으로 기층에 와닿지 못하고 형식적인 것에 그쳤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약물교육은 남용 약물들의 유해성과 남용행위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며, 교육자가 약물지식이 부족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약물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 선정, 교육내용 개발, 교육방법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약물에 관한 지식 정도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 61.2%, 잘 알고 있다 26.9%, 잘 모르고 있다 11.9% 순이었으며, 이에 따른 태도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약물지식 정도에 따른 태도점수에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약물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약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

다고 볼 수 있다.

3. 약물남용실태

1) 커피 음용경험

조사 대상자의 70.4%가 커피음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이 78.9%로 중학생 62.4%보다 높았으며, 고등학생의 1.9%는 하루에 2~3잔 이상 마신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학습량이 많은 고등학생들이 수면방지 효과가 있는 커피를 공부할 때 잠을 쫓기 위해 음용한다고 보여진다. 처음 마시기 시작한 시기는 중학교 때부터가 59.8%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

등학생을 비교해 볼 때, 중학생의 37.3%는 국민학교 때부터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였다고 응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음용연령이 하향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약물남용의 가장 초기단계라고 보여지는 커피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교육이 국민학교 과정에서부터 필요하다고 본다.

2) 음주경험

조사 대상자의 40.4%가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학생(51.4%)이 여학생(29.5%)보다, 고등학생(57.7%)이 중학생(23.4%)보다 높았으며, 실업계(65.6%)가 인문계(47.9%)보다 높았다.

표 3. 제특성별 약물에 대한 태도 점수

		사례수(%)	M	S.D	F or t	P
이성 교제	있다	200(17.7)	30.1	4.69	55.6964	0.0000***
	전에 있었다	202(17.9)	31.2	4.47		
	혼자서 좋아한다	148(13.1)	33.3	3.02		
	없다	579(51.3)	33.7	3.31		
성적	상위권(학급 15등 이내)	466(41.5)	33.1	3.84	12.610	0.0000***
	중위권(학급 30등 이내)	498(44.0)	32.4	4.05		
	하위권	163(14.5)	31.3	4.37		
부모의 결합 형태	함께 사신다	998(89.0)	32.6	3.96	0.8586	0.4621
	별거	30(2.7)	32.1	5.43		
	이혼	43(3.8)	32.3	4.25		
	사별	51(4.5)	31.8	4.63		
부모의 양육 형태	과보호적이라 생각한다	87(7.9)	31.6	5.01	11.9708	0.0000***
	지배적이라 생각한다	115(10.4)	30.6	4.83		
	거부적이라 생각한다	17(1.5)	30.7	3.97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	31(2.8)	31.8	3.63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867(77.4)	33.0	3.70		
경제적 상태	아주 잘 산다	18(1.6)	31.2	4.57	3.0906	0.0152*
	잘 사는 편이다	180(15.8)	33.1	4.25		
	보통이다	857(75.2)	32.5	3.96		
	가난하다	79(6.9)	32.4	4.03		
	아주 가난하다	5(0.4)	27.8	4.32		
약물 교육을 받은 여부	예	759(66.8)	32.5	4.09	-0.71	0.480
	아니오	377(33.2)	32.7	3.92		
약물에 대한 지식	잘 알고 있다	304(26.9)	32.3	4.54	0.5924	0.5532
	그저 그렇다	692(61.2)	32.6	3.74		
	잘 모르고 있다	135(11.9)	32.8	4.38		

* p<0.05, *** p<0.001

표 4. 집단별 커피 음용경험 정도

단위: 명(%)

	성		학 교		고등학교		계
	남	여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커피 음용경험							
전혀 마시지 않는다	170(28.6)	186(30.6)	233(37.6)	123(21.1)	60(21.1)	63(21.1)	356(29.6)
한달에 2~3회(시험 때만 마신다)	279(47.0)	303(49.9)	308(49.8)	274(47.1)	136(47.9)	138(46.3)	582(48.5)
1주일에 2~3회	97(16.3)	79(13.0)	62(10.0)	114(19.6)	51(18.0)	63(21.1)	176(14.7)
하루에 한잔	34(5.7)	27(4.4)	7(1.1)	54(9.3)	29(10.2)	25(8.4)	61(5.1)
하루에 2~3잔 이상	9(1.5)	7(1.2)	5(0.8)	11(1.9)	5(1.8)	6(2.0)	16(1.3)
기타	5(0.8)	5(0.8)	4(0.6)	6(1.0)	3(1.1)	3(1.0)	10(0.8)
음용 시작 시기							
국민학교 저학년	15(3.6)	7(1.6)	18(4.9)	4(0.9)	4(1.8)	0(0.0)	22(2.6)
국민학교 고학년	99(22.3)	77(18.0)	122(32.4)	48(10.4)	21(9.5)	27(11.3)	170(20.1)
중학교 때부터	240(57.6)	265(61.9)	237(62.9)	268(58.3)	129(58.1)	139(58.4)	505(59.8)
고등학교 때부터	69(16.5)	79(18.5)	0(0.0)	140(30.4)	68(30.6)	72(30.3)	148(17.5)

무응답 제외

표 5. 집단별 음주 경험 정도

단위: 명(%)

	성		학 교		고등학교		계
	남	여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음주경험							
전혀 마시지 않는다	238(48.6)	347(70.5)	379(76.6)	206(42.3)	113(52.1)	93(34.4)	585(59.6)
가끔 마신다(한달에 한번 정도)	135(27.6)	73(14.8)	52(10.5)	156(32.0)	57(26.3)	99(36.7)	208(21.2)
자주 마신다(일주일에 1회 이상)	31(6.3)	7(1.4)	6(1.2)	32(6.6)	12(5.5)	20(7.4)	38(3.9)
과거에 마셨으나 금주했다	54(11.0)	46(9.3)	44(8.9)	56(11.5)	20(9.2)	36(13.3)	100(10.2)
기타	32(6.5)	19(3.9)	14(2.8)	37(7.6)	15(6.9)	20(8.1)	51(5.2)
음주 시작 시기							
국민학교 저학년	6(2.5)	3(1.9)	8(7.0)	1(0.4)	1(0.8)	0(0.0)	9(2.3)
국민학교 고학년	43(17.7)	19(12.3)	46(40.4)	16(5.7)	12(9.4)	4(2.6)	62(15.6)
중학교 때부터	120(49.4)	91(59.1)	60(52.6)	151(53.4)	61(47.7)	90(58.1)	211(53.1)
고등학교 때부터	74(30.5)	41(26.6)	0(0.0)	115(40.6)	54(42.2)	61(39.4)	115(29.0)

무응답 제외

현 음주자의 경우는 남학생 40.4%, 여학생 20.1%, 중학생 14.5%, 고등학생 46.2%로 나타났으며, 또 자주 마신다의 경우(1주일에 1회 이상)도 중학교 1.2%, 고등학교 6.6%로 응답하였다.

주(1990)의 연구에서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현 음주자가 남학생 46.9%, 여학생 21.1%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본 연구결과가 다소 낮게 나타나

것은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 보여지며, 음주 빈도에 있어서는 방법상의 차이는 있으나 주 등(1983)의 연구에서는 거의 매일 음주를 하는 경우 중학생 1.7%, 고등학생 4.4%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최초로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기는 중학교 때부터가 53.1%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의 경우 국민학교

고학년 때 처음 마시기 시작한 경우가 40.4%였으며, 국민학교 저학년 때부터도 7.0%나 되었다. 또 실업계는 인문계보다 음주 시작연령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중학교 시절 이전에 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3) 흡연경험

조사대상자의 24.8%가 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63.5%는 중학교 혹은 그 이전에 흡연을 시작했다고 하였다.

이를 집단별로 보면, 남학생(37.2%)이 여학생(12.5%)보다, 고등학생(33.3%)이 중학생(16.3%)보다, 실업계(42.4%)가 인문계(23.6%)보다 높았다. 이는 주 등(1983)의 남학생 53.8%, 여학생 6.8%, 중학교 22.0%, 고등학교 38.5%, 김 등(1989)의 남학생 48.8%, 여학생 10.9%, 중학교 16.6%, 고등학교 43.1%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조사대상이나 지역적 차이로 인해 명확한 규명은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여학생 흡연율에서는 도리어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현 흡연자는 남학생 25.5%, 여학생 7.1%였으며, 중학생 7.6%, 고등학생 24.8%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주(1990)의 연구에서 현 흡연자 남학생 37.8%, 여학생 7.8%로 나타났다.

흡연 시작 시기는 중학교 때부터가 60.7%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전반적으로 흡연 시작 연령이 낮게 나타났으며, 중학생 흡연 경험자 중 39.1%가 벌써 국민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국민학교 과정에서부터 흡연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약물남용 경험

여기에서의 약물은 커피, 술, 담배를 제외한 혐의의 약물을 말하며, 약물남용 경험자는 76명으로 전체의 6.3%였다.

한편 1988년도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1990)의 연구에 의하면 남용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20.1%로 본 연구에 의한 6.3%보다 높았으나 이는 약물 분류 방법상 진통제 등이 포함되는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부산시 청소년 상담실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국제신문, 1994)청소년의 약물이나 환각제 남용 경험은 7.1%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약물사용 횟수는 지금까지 1회를 경험한 경우가 전체의 40.6%로 가장 많았고, 2회 정도 27.5%, 3~5회 17.4%, 한달에 한번 정도 7.2%, 일주일에 한번 이상

표 6. 집단별 흡연경험 정도

단위: 명(%)

	성		학 교		고등학교		계
	남	여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흡연경험							
전혀 피우지 않는다	378(62.8)	532(87.5)	508(83.7)	402(66.7)	223(76.4)	179(57.6)	910(75.2)
가끔 피우다(일주일에 한번 정도)	24(4.0)	12(2.0)	11(1.8)	25(4.1)	9(3.1)	16(5.1)	36(3.0)
자주 피운다(하루에 1회 이상)	60(10.0)	10(1.6)	7(1.2)	63(10.4)	13(4.5)	50(16.1)	70(5.8)
과거에 피운적이 있으나 금연했다	71(11.8)	33(5.4)	53(8.7)	51(8.5)	26(8.9)	25(8.0)	104(8.6)
기타	69(11.5)	21(3.5)	28(4.6)	62(10.3)	21(7.2)	41(13.2)	90(7.4)
시작 시기							
국민학교 저학년	1(0.8)	2(5.0)	3(6.5)	0(0.0)	0(0.0)	0(0.0)	3(1.5)
국민학교 고학년	19(14.5)	1(2.5)	15(32.6)	5(4.0)	2(5.0)	3(3.6)	20(10.0)
중학교 때부터	78(59.5)	26(65.0)	28(60.9)	76(61.3)	21(52.5)	55(65.5)	104(52.0)
고등학교 때부터	33(25.2)	11(27.5)	0(0.0)	43(34.7)	17(42.5)	26(31.0)	44(22.0)

무응답 제외

표 7. 집단별 약물경험 정도

단위: 명(%)

	성		학 교		고등학교		계
	남	여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약물사용 횟수							
지금까지 1회	16(36.4)	12(48.0)	3(27.3)	25(43.1)	12(42.9)	13(43.3)	28(40.6)
2회 정도	12(27.3)	7(28.0)	6(54.5)	13(22.4)	8(28.6)	5(16.7)	19(27.5)
3~5회	9(20.5)	3(12.0)	1(9.1)	11(19.0)	4(14.3)	7(23.3)	12(17.4)
한달에 한번 정도	2(4.5)	3(12.0)	0(0.0)	5(8.6)	2(7.1)	3(10.0)	5(7.2)
일주일에 한번 이상	4(9.1)	0(0.0)	1(9.1)	3(5.2)	2(7.1)	1(3.3)	4(5.8)
기타	1(2.3)			1(1.7)		1(3.3)	1(1.4)
시작 시기							
국민학교 저학년	1(2.3)	0(0.0)	1(9.1)	0(0.0)	0(0.0)	0(0.0)	1(1.4)
국민학교 고학년	1(2.3)	0(0.0)	1(9.1)	0(0.0)	0(0.0)	0(0.0)	1(1.4)
중학교 때부터	30(68.2)	19(76.0)	9(81.8)	40(69.0)	18(64.3)	22(73.3)	49(71.0)
고등학교 때부터	12(27.3)	6(24.0)	0(0.0)	18(31.0)	10(35.7)	8(26.7)	18(26.1)

무응답 제외

표 8. 남용 약물의 종류

단위: 명(%)

	성 별		학 교		고등학교		계
	남	여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본드	14	7	3	18	3	15	21(20.3)
신나	3	1		4		4	4(3.8)
부탄가스	13		3	10	2	8	13(12.6)
히로뽕	2		1	1		1	2(1.9)
암페타민	1			1		1	1(0.9)
타이밍	34	19	7	46	27	19	53(51.4)
LSD	1		1			1	1(0.9)
메스카린	2		1	1		1	2(1.9)
마리용	1			1		1	1(0.9)
아티반	1		1				1(0.9)
페노바비탈	1			1	1		1(0.9)
아빌	1			1			1(0.9)
코카인	2			2		2	2(1.9)
계	76	27	17	86	33	53	103

약물남용 경험자 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5.8% 순으로 나타났다.

남용 시작 시기로는 중학교 때부터가 71.0%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의 경우 국민학교 때부터 남용을 시작한 경우도 18.2%였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국민학교 때의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들의 약물 시작 연령이 고등학생들보다 빠름을 나타내었다. 이로써 중학교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약물 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남용 약물의 종류는 표 8과 같다.

한 학생이 2가지 이상 약물을 남용한 경우를 포함한 복합 남용실태는 타이밍 51.4%, 본드 20.3%, 부탄가스 12.6%, 신나 3.8% 순으로 나타났는데 타이밍의 경우, 각성제로 과도한 입시경쟁에 시달리는 청소년들 사이에 불면효과를 기대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부산시 청소년 상담실(국제신문, 1994)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약물이나 환각제 남용경험은 7.1%이었으며, 종류별로는 본드 63.6%, 부탄가스 10.1%, 각성제 9.3%, 마약류 2.3%였다.

이를 본 연구와 비교하면, 부산시청소년상담실은 모든 청소년(학교 청소년, 근로 청소년,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학교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타이밍(각성제)의 비율이 높았다고 보여진다.

5) 약물남용과 관련된 제반사항

습관성 약물남용 시 약물구입과 약물남용 동기 등에 관한 사항은 표 9와 같다.

복합 남용자의 경우 약물에 따라 두가지 이상 답한 것을 포함한 결과, 약물 구입경로로는 본인이 약국에서 57.3%, 친구를 통하여 24.0%, 문방구나 화공약품점에서 18.8%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 등(1993)의 약국 78.3%, 병원 7.9%, 구멍가게 3.2%와 비교하여 볼 때 약국의 경우가 높은 것은 본 연구와 동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남용 가능성 있는

표 9. 집단별 약물 남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

단위: 명(%)

	성 별		학 교		고등학교		계
	남	여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주요 약물 구입경로							
본인이 약국에서	30(53.6)	25(64.5)	11(42.3)	44(62.9)	24(77.4)	20(51.3)	55(57.3)
문방구나 화공약품점에서	11(19.6)	7(17.5)	8(30.8)	10(14.3)	3(9.7)	7(17.9)	18(18.8)
친구를 통하여	15(26.8)	8(20.0)	7(26.9)	16(22.9)	4(12.9)	12(30.8)	23(24.0)
약물 사용자 동반자							
혼자	20(45.0)	13(41.9)	8(29.6)	32(50.0)	15(60.0)	17(43.6)	40(44.0)
2명	12(20.0)	7(22.6)	11(40.7)	8(12.5)	4(16.0)	4(10.3)	19(20.9)
3~5명	13(21.7)	9(29.0)	6(22.2)	16(25.0)	3(12.0)	13(33.3)	22(24.2)
6명 이상	8(13.3)	2(6.5)	2(7.4)	8(12.5)	3(12.0)	5(12.8)	10(11.0)
약물사용 동기							
피로움을 잊고 기분이 편안 해지기 위하여	5(10.0)	1(3.0)	1(3.6)	5(9.1)	0(0.0)	5(17.2)	6(7.2)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새로운 경험을 얻기 위하여	13(26.0)	8(24.2)	10(35.7)	11(20.0)	6(23.1)	5(17.2)	21(25.3)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혹은 친구의 권유로	3(6.0)	3(9.1)	5(17.9)	1(1.8)	0(0.0)	1(3.4)	6(7.2)
강한 힘을 얻고 남성다워지 기 위하여	0(0.0)	1(3.0)	1(3.6)	0(0.0)	0(0.0)	0(0.0)	1(1.2)
성적인 쾌감을 느끼기 위하여	5(10.0)	0(0.0)	2(7.1)	3(5.5)	1(3.8)	2(6.9)	5(6.0)
황홀감이나 무아지경울 느끼 기 위하여	3(6.0)	0(0.0)	0(0.0)	3(5.5)	1(3.8)	2(6.9)	3(3.6)
치료 및 수면 방지 목적으로	21(42.0)	20(60.6)	9(32.1)	32(58.2)	18(69.2)	14(48.3)	41(49.4)
약물사용 후 기분							
유쾌하다	16(28.6)	1(3.1)	5(17.9)	12(20.0)	3(11.5)	9(26.5)	17(19.3)
그저 그렇다	27(48.2)	20(62.5)	16(57.1)	31(51.7)	15(57.7)	16(47.1)	47(53.4)
분쾌하다	13(23.2)	11(34.4)	7(25.0)	17(28.3)	8(30.8)	9(26.5)	24(27.3)
약물 구입시 용이도							
쉽다	36(61.0)	24(72.7)	16(53.3)	44(71.0)	20(74.1)	24(68.6)	60(65.2)
어렵다	5(8.5)	1(3.0)	4(13.3)	2(3.2)	0(0.0)	2(5.7)	6(6.5)
때에 따라 차이가 있다	18(30.5)	8(24.2)	10(33.3)	16(25.8)	7(25.9)	9(25.7)	26(28.3)

약물을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어렵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겠다고 사료된다.

약물 사용시 동반자에 대해서는 혼자 44.0%, 3~5명 24.2%, 2명 20.9%, 6명 이상 1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2명이 40.7%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은 혼자 50.0%로 가장 많았다. 약물 사용동기에 대하여는 치료 및 수면 방지 목적으로 49.4%,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새로운 경험을 얻기 위하여 25.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김 등(1993)의 연구 결과, 잠을 안자기 위해 49.4%, 모험추구형 27.7%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동일하였으며, 여기서 수면방지 목적은 학생의 학교 성적과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와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약물사용 후 기분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 53.4%, 불쾌하다 27.3%, 유쾌하다 19.3% 순으로 김 등(1993)의 연구 결과, 무감각이 34.4%, 짐이 안오고 의식이 흐려졌다 22.8%, 그외 기분이 나쁘다 3.9%와 거의 동일하였다. 남녀간의 비교에 있어서는 유쾌하다는 경우, 남학생 28.6%, 여학생 3.1%로 남학생이 탐닉적 느낌이 높았다.

약물 구입시 용이도는 쉽다 62.5%, 때에 따라 차이가 있다 28.3%, 어렵다 6.5%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약물 구입을 의사의 처방없이도 쉽게 할 수 있는 현 제도 때문이라 보여진다.

4. 약물에 대한 태도와 약물남용과의 관계

커피음용, 음주, 흡연 및 약물남용 경험에 따른 약물에 대한 태도 점수는 표 10과 같다.

커피음용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약물에 대한 태도점

수(34.5점)가 있는 경우(31.7점)보다 높았다(P<0.001).

음주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약물에 대한 태도점수(34.4점)가 있는 경우(30.8점)보다 높았다(P<0.001).

흡연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약물에 대한 태도점수(33.6점)가 있는 경우(29.2점)보다 높았다(P<0.001).

약물남용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약물에 대한 태도점수(32.8점)가 있는 경우(28.9점)보다 높았다(P<0.001).

이와같이 커피음용, 음주, 흡연, 약물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의 약물에 대한 태도점수가 경험한 경우보다 높았으므로, 청소년들이 약물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갖고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학교, 가정, 사회의 다각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예방교육과 계몽을 통해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부정적인 태도와 행위를 긍정적 태도와 행위로 변화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green. et. al, 1980).

미국에서는 약물남용을 그대로 방치하였다가는 청소년은 물론 사회 자체가 약물로 인한 고통을 받게될 것을 우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특히 학교보건과정에서 "약물남용으 인한 위기", "마약에 대한 유혹으로부터의 대응방법", "약물남용에 관한 기본 법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Packer, Bower, 1982).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체계화된 학교약물예방교육이 수립되어 있지않다.

표 10. 커피음용, 음주, 흡연, 약물경험 유무별 약물에 대한 태도점수

		비 율	약물 태도 점수		t	P
			M	S.D		
커피음용경험	무	29.6	34.5	2.93	11.21	0.000***
	유	70.4	31.7	4.16		
음주경험	무	59.6	34.4	2.73	17.12	0.000***
	유	40.4	30.8	4.27		
흡연경험	무	75.2	33.6	3.15	18.02	0.000***
	유	24.8	39.2	4.60		
약물경험	무	93.7	32.8	3.82	8.32	0.000***
	유	6.3	28.9	5.17		

*** p<0.001

표 11. 커피음용, 음주, 흡연 경험 유무별 약물 경험 유무

		약물남용		x ²	P
		무	유		
커피음용 경험	무	532(31.0)	4(5.3)	21.567	0.0000***
	유	782(69.0)	72(94.7)		
음주경험	무	574(50.6)	11(14.5)	35.826	0.0000***
	유	560(49.4)	65(85.5)		
흡연경험	무	880(77.6)	30(39.5)	53.504	0.0000***
	유	254(22.4)	46(60.5)		

*** p<0.001

5. 커피음용, 음주, 흡연, 약물남용 경험 간의 관계

약물남용과 커피음용, 음주, 흡연과의 관계는 표 5과 같다.

커피음용경험이 있는 경우(94.7%)가 없는 경우(5.3%)보다 약물남용율이 높았다(P<0.001).

음주경험이 있는 경우(85.5%)가 없는 경우(14.5%)보다 약물남용율이 높았다(P<0.001).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60.5%)가 없는 경우(39.5%)보다 약물남용율이 높았다(P<0.001).

이와같은 결과는 권순경(1990)의 음주나 흡연경험이 있는 집단이 모든 종류의 약물에 대한 사용율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 약물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커피음용, 음주, 흡연과 같은 초기단계의 약물남용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계몽을 실시함으로써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부산시내 중·고등학교의 약물에 대한 태도와 남용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청소년의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조사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한 중학교 4개교(남중 2개교, 여중2개교)와 고등학교 4개교(인문계 남자고등학교 1개교,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1개교, 실업계 남자고등학교 1개교, 실업계 여자고등학교 1개교)의 각 학년에서 한 학급씩 선정하여 총24학급, 1210명의 학생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

료수집은 양호교사 또는 관련 교사가 대상학급에 유의사항과 함께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하게 한 후, 즉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였고, 자료수집 기간은 1995년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2주일간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x²-test, t-test, F-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약물에 대한 태도

조사대상 중, 고등학생들의 약물에 대한 태도점수는 평균 32.5점으로 약물에 대해 비교적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P<0.001),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P<0.001) 바람직한 태도를 보였다.

항목별로 보았을 때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아무리 친한 친구가 권하더라도 그것이 해로운 약물일 때에는 나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2.8점)와 '본드, 가스나 해로운 약물 등을 사용하는 것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2.8점)였으며,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대학교 시절에는 음주, 흡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1.9점)였다. 남녀 간, 중·고등학교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음주와 흡연은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을 준다'였다.

제특성별로는 이성교제가 없고(P<0.001), 성적은 상위권이며(P<0.001), 부모의 양육형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P<0.001), 경제상태는 보통인 군(P<0.05)에서 약물에 대한 태도점수가 높았다.

2. 조사대상자의 약물남용 실태

커피음용경험은 조사대상자의 70.4%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62.4%, 고등학생 78.9%였다. 마시기 시작하는 시기는 중학교 때부터가 59.8%로 가장 많았다.

음주경험은 전체 대상자의 40.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51.4%, 여학생 29.5%, 중학생 23.4%, 고등학생 57.7%였다. 마시기 시작하는 시기는 중학교 때부터가 53.1%로 가장 많았으며, 현 음주자는 남학생 40.4%, 여학생 20.1%, 중학생 14.5%, 고등학생 46.2%로 나타났다.

흡연경험은 전체 대상자의 24.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37.2%, 여학생 12.5%, 중학생 16.3%, 고등학생 33.3%였다. 피우기 시작하는 시기는 중학교 때부터가 60.7%로 가장 많았으며, 현 흡연자는 남학생 25.5%, 여학생 7.1%, 중학생이 7.6%, 고등학생 24.8%로 나타났다.

약물경험은 조사대상자의 6.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용 시작시기는 중학교 때부터가 71.0%로 가장 많았다. 남용 약물의 종류로는 타이밍 51.4%, 본드 20.3%, 부탄가스 12.6%, 신나 3.8%, 히로뽕 1.9%, 메스카린 1.9% 이었다.

약물 구입경로는 본인이 약국에서가 57.3%로 가장 많았고, 약물사용시 동반자는 혼자 44.0%로 가장 많았다. 약물 사용동기에 대하여는 치료 및 수면방지 목적으로 49.4%,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새로운 경험을 얻기 위하여 25.3% 순이었으며, 약물사용 후의 기분은 그저 그렇다 53.4%, 불쾌하다 27.3%, 유쾌하다 19.3% 순이었다.

약물구입시 용이도는 쉽다 65.2%로 가장 높았다.

3. 약물에 대한 태도와 약물남용과의 관계

커피음용, 음주, 흡연 및 약물을 남용하지 않는 경우가 하는 경우보다 약물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다 ($P<0.001$).

4. 커피 음용, 음주, 흡연, 약물 남용 경험 간의 관계

커피음용, 음주, 흡연을 하는 경우가 안하는 경우보다 약물 남용율이 높았다($P<0.001$).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은 시기적으로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자보다 남자, 중학교생보다 고등학교생의 남용율이 높았으며,

약물남용의 초기단계인 커피음용, 음주, 흡연을 하는 경우는 다음 단계의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로 미루어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학교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약물예방지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관계자들의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며, 매스컴의 효과적인 활용과 약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약물 구입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청소년과의 따뜻하고 충분한 대화도 많은 힘이 되리라 본다. 또 커피음용, 음주, 흡연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을 통하여 기초식품으로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지만 이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청소년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최연아 (1987) :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물사용실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 기백석 (1990) :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학교보건학회지 3(2), p.41-45.
3. 김경빈 (1989) : 입원된 정신활성물질 남용자의 사회정신의학적 특징, 제30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4. 주왕기 편 (1989) : 약물 남용, 세계사.
5.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1990) :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
6. Chinlund S. (1974) : Juvenile Offenders and the Drug Problem, in Problems of Adolescents. Ed. by Hardy, R.E. and Cull, J.G., Illinois. Thomas.
7. 최선화 (1991) :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집단 사회사업적 개입 모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8. 보건사회부 (1993) : 학교 청소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교재.
9. 주왕기 (1990) : 한국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 한·일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제12회 한·일 청소년문제연구세미나 자료), p.5~27.
10. 김성이 등 (1989) : 청소년 약물 오·남용의 실태와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1. 부산직할시 교육청 (1991) :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 자료.
12. 보건사회부 (1992) : 마약등 약물남용 예방, p.5.
13. 체육청소년부 (1991) :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지침서.

14. 김상희 등 (1991) : 청소년의 약물남용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천성기 (1969) : 세계 약물 습관성 중독의 현황, 종합의학 14(4), p.15.
16. 조선일보 : 1994년 12월 8일자.
17. 이라키 노부요시 (1990) : 일본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 한·일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 (제12회 한·일 청소년문제연구세미나 자료), p.29-49.
18. 국제신문 : 1994년 5월 25일자.
19. 국제신문 : 1994년 8월 18일자.
20. 황영숙 (1990) : 청소년의 약물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국제신문 : 1994년 12월 2일자.
22. 보건사회부 : 보건사회, 1988.
23. 주왕기, 허문영, 최영옥, 노성규 (1983) : 중·고등학생의 약물남용 실태(1982), 사회과학연구 제18편, p.161~183.
24. 권순경 (1990) : 중·고등학생의 약물남용실태조사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약학논문지 제1권, p.1-28.
25. 김소야사, 현명선, 성성미, 공성숙 (1993) :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연구, 간호학회지 제23권 제3호, p.487-503.
26. Green, L. W. et al (1980) : Health Education Planning-A Diagnostic Approach-The Johns Hopkins University, Mayfield Publishing Co.
27. Packer, K. L., Bower, J. (1982) : Let's Talk about Health-Teachers Edition Cebco Standard Publishing, Standex Co.